

“전북 지선공천 핵심 여성·청년·도덕성”

민주 김성주 도당위원장
“여성 후보자 전체 28%
청년은 목표치 미달
부적격 후보자 걸러내기
위한 검증 작업 공 들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10일 “이번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는 도덕성과 새로운 세대·인물을 핵심 기조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 여성후보자와 2030청년 후보자의 진출이 두드러졌다면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천에서 여성과 청년을 늘리려 고심했다. 그 결과 모두 73명으로 전체 후보 중 28%였으며, 청년 후보 비중은 전체의 20%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기초의원 후보로 전주시 타산거구에 서 신유정(99년생), 전주시 아산거구 최서연(96년생), 전주시 사선거구 이성국(93년생) 후보 등 3명이 진출했다”고 밝혔다.

또 광역의원 신설선거구인 전주시 9선거구에는 30대 여성인 서나아(86년생) 후보를 전라적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광역의원 비례대표 1순위 후보로는 시민공천배심원단(30%)을 통해 청년창업가인 김슬지(85년생)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기 위한 후보 검증 작업에도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후보자의 전과경력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과 강력범죄는 원천배제한 결과 지난 2018년 당시 전체 후보 중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10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과 경력자 비율이 41.6%에서 20.6%로 낮아졌으며,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40%에서 21.4%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원천 배제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도 없다”며 “음주나 기타 폭행 이런 전과 경력 있는 후보들을 심사를 통해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위원장은 청년 후보자의 저조와 관련해 “청년인구가 비교적 많은 도시지역과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차이로 보인다”면서 “각 지역 위원장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혁신 공천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검증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것이 현직 단체장들이나 여론조사 1위 후보들이 배제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자리를 정말 훌륭하고 역량있는 후보가 대신했느냐

에 대한 부분에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도 준비해야 하지만 각 지역도 좋은 후보들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좋은 후보가 있으면 대안으로 부상할텐데 그 대안이 적절치 않다면 과감히 혁신공천은 대단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후보가 반복된 사례에 대해서는 “도당에서 판단한 것과 중앙당에서 판단한 것이 다른 경우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많았지만,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불일치가 생기더라도 각 판단 단위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위원장은 “이번 공천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도당위원장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천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안산 시저로 향하기 전 배웅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측 제공)

“마음만은, 정신만은 훨훨 자유롭게 날 것”

문 전 대통령, 서울역 광장 운집 시민들에 귀환 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일 “저희는 대통령이 될 때 약속드린 것처럼 우리가 있었던 시골로 돌아간다”며 “퇴임하고 시골로 돌아가는 것에 섭섭해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10분 서울역광장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즉석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뒤, “저는 해방됐다. 저는 자유인이 됐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반려견들도 보고 농사짓고 가까운 성당도 다니고 평생 제 이웃인 통도사도 자주 놀러가

면서 성과 스남께서 주시는 차도 얻어 마시고, 마을 주민들과 막걸리도 한잔 나누고 시간 내면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몸은 얼마일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정신만은 훨훨 자유롭게 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우리 함께 잘 살아보겠다”며 “응원해달라”고도 했다.

전날 청와대 마지막 퇴근길에 만난 여 명이 운집해 환호했던 것에 관해 “아주 멋진 퇴임식을 가졌다”며 “공

식 행사도 아니고 청와대가 기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 퇴근을 기다리던 많은 시민들께서 아주 감동적인 퇴임식을 마련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가 그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여러분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행복한 대통령일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문 전 대통령은 KTX 열차편으로 울산 통도사역으로 이동한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도착했다. /뉴스

“전북 경제 1번지 완주 만들 것”

송지용 전 도의회 의장, 무소속 완주군수 출마 선언
“군민 선택 받고 당당히 승리해 민주당 복당할 것”

송지용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완주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송 전 의장은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민의 선택을 받고 당당히 승리해 민주당에 돌아오겠다”면서 “전북도 경제 1번지 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라며 “두 번의 완주군의원, 두 번의 전북도의원 모두 민주당의 옷을 입고 선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완주군 출신 첫 전북도의회 의장이라는 과중한 사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6년 의정활동의 성과로는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고질적 물량부족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송 전 의장은 “민주당에서 이뤄낸 정치적 성장은 군민들의 지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다”라며 “수많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당을 지키고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매진한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 대해서는 실망을 표했다.

송 전 의장은 “공정과 원칙은 민주당 내 소수 기록권 정치에 의해 훼손됐다”며 “쫄새우기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유력 정치인의 쫄새우기와 정치 논리의 희생양이 돼 사랑하는 민주당 후보로 나설 기회조차 없었다”며 “불



의와 타협하지 않고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가겠다.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지용 전 의장은 “완주군의 주인은 유력 정치인도, 지역 토호세력도 아닌 군민이다”면서 “무소속으로 군민들의 선택을 받고, 당당히 승리해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겠다. 군민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완주군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호상 기자

“깨끗한 완주 만드는데 헌신”

두세훈 변호사, 민주 완주군수 경선 낙선인사

두세훈(전 전북도의원) 변호사가 완주군수 경선 낙선인사를 통해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했지만, 지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완주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지난 9일 완주군수 후보 재경선 투표 발표 후 유희태 후보와의 통화에서 “민경강 기적을 약속한 유희태 후보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는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함께 고생하신 이든승 후보



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과는 오롯이 저의 부족한 때문이다”면서 “지난 5개월 동안 선거 운동하면서 제 손을 잡아준 완주군민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

하던 열정으로 우선 생업인 완주군 기업변호사로서 돌아가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완주군 13개 읍·면 마을번호 호사로 공익활동하면서 깨끗한 완주군을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두 변호사는 “민주당 완주군수 재경선으로 지역위원회 분열의 우려가 있는데, 사랑하는 당원 동지들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단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군민 화합·지역경제 활성화·돈버는 농업 구현”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

무소속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10일 순창발전 비전 핵심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역 내 인구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군민 화합을 꼽았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의 취지와는 달리 순창은 과거 선거를 통해 주민 간 화합과 뜻을 모으기는커녕 갈등과 분열의 길로 역주행이 계속됐다”며 “지방자치 30여년의 지금은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위기에 처한 순창을 살리는데 최영일이 앞장서 순창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영일이 당선되면 순창을 분열시킨 요인인 정치보복, 편가르기, 제식구 감싸기등을 뿌리 뽑는데 군정의 최우선 기조로 삼을 것이다”라며 3분정칙의 청사진을 내놨다.

이는 최 예비후보가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이



른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큰 뜻을 군민들에게 공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예비후보는 특히, 순창만이 지닌 경쟁력을 바탕으로 순창을 반석위에 올려놓겠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은 순창을 중심으로 흐르는 ‘경천’과 ‘양지천의 기적’에서 꼽았다. 최 예비후보는 “경천과 양지천의 기적이었던 거대한 개발사업이 아닌 자연생태 하천의 복원으로, 주민 친수 공간을 조성해 새로운 관광자원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러는 자연 생태환경을 복원시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주민친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상권을 연계한 소득창출에 나선다는 전략이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최 예비후보는 이어, “순창시장 상품권을 180억에서 300억으로 과감히 증액시켜 지역 소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유혹된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선 즉시 전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을 약속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19 집·후의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순창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일 예비후보는 끝으로 ‘돈버는 농업’을 구현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임기중 농민기본소득을 실현 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가뭄이나 수해 등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책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업, 돈버는 농업 구현을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관광객 100만도시 정읍 조성”

김관영 도지사 예비후보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9일 전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방문해 정읍시 공약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 예비후보는 “정읍은 전북의 서남권 거점도시로서 3대 국제 연구기관과 48만평의 연구개발특구단지 지정돼 있는 첨단 과학 산업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교육원 등 매년 수만 명이 방문하는 연수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면서 “관광객 100만 도시와 전국 최고의 첨단도시 정읍을 위해 주요 공약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산업단지조성사업은 암 환자



등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치료를 위한 곳이다”라며 “첨단의료기기 생산 시설 등이 들어서서 복합 사업이지만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용산호와 문화관광, 내강산을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관광벨트 사업이 조성 중이다”며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신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농축산물 미생물 산업화 지원에서도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국힘 조배숙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로 출마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예비후보가 11일 오후 2시, 전주 중화산동2가 H5빌딩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조 후보는 “전북에 뼈를 묻을 정치인으로서 전북 발전을 위해 내뿜을 던지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면서 “전북은 지난 수십년간 민주당이 도정을 이끌었는데 일당독점의 결과는 낙후와 참패뿐이었다. 이제 우리가 민주당 일당 독점의 사슬을 끊어내자”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